

최근 인도-파키스탄 통상관계 개선 동향

- 2012년 4월 8일 파키스탄 대통령이 인도를 7년 만에 비공식 방문하고, 이어 4월 13일 개최된 인도-파키스탄 상무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교역원활화 조치와 인도가 파키스탄에 직접투자를 허가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는 등 양국 통상관계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음.
 - 지난 2011년 11월 파키스탄 내각이 인도에게 교역에서의 최혜국(MFN) 지위를 부여¹⁾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국은 내달부터 관련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며, 현 교역규모를 약 20억 수준에서 2014년 60억까지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.
 - 또한 양국은 국경 간(cross-border) 교역원활화를 위해 주요 국경 지역인 와가(Wagah)에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교역소(Integrated Check Post)를 지난 4월 13일 개소하였으며, 이로써 현 거래규모 하루 트럭 25대에서 600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 - 인도는 파키스탄의 대인도 FDI를 허가²⁾할 것이라 발표하였으며,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공시할 예정이라 밝힘.
 - 양국은 복수상용비자 발급을 위한 협정을 추진하여 올해 안에 서명하기로 합의하였으며, 인도-파키스탄 기업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business council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함.
- 이러한 통상 분야에서의 인도-파키스탄 관계 개선 조짐은 최근 미국-파키스탄 관계 악화, 파키스탄의 경제개발 필요성 등에 따른 파키스탄의 현실적인 판단과 인도의 대파키스탄 정책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.
 - 미국-파키스탄 관계는 2011년 5월 미국이 파키스탄 영토 내에서의 단독작전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이후 악화된 상태임.
 - 파키스탄 상무장관은 인도-파키스탄 관계에서의 우선순위는 경제 부문이라고 언급하고, 이를 통해 다른 분야에서의 양국관계도 개선해나갈 수 있음을 밝힘.
 - 한편 2008년 뭄바이 호텔 테러 사건 이후, 인도의 대파키스탄 정책의 초점은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테러용의자 체포 협조 요구에 맞추어져왔으나, 최근 이러한 정치적 민감 사안 외에 투자 및 교역 등 통상관계 개선으로 다변화되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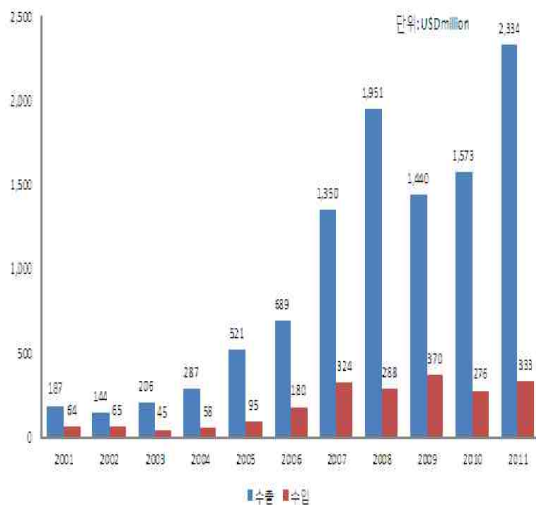
1) 인도는 1996년 파키스탄에 최혜국지위를 부여하였음.

2) 파키스탄은 인도의 외환관리법(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)하에서 인도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된 유일한 나라임.

있음.

- 인도-파키스탄 간 교역정상화, 통상협력 강화는 양자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역내 SAFTA(남아시아자유무역지역)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- 2011년 인도-파키스탄 공식 교역은 약 27억 달러이고, MFN미적용으로 인한 제3국을 경유한 비공식교역은 연간 약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됨.
- SAFTA는 2006년 출범하여 2016년까지 역내 무역자유화 실현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으나, 인도-파키스탄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SAARC 정상회담 개최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양국 갈등관계는 역내 경제통합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옴.
- o 2009년 기준 남아시아 역내교역비중은 5%에 불과함(2009년 기준 NAFTA 42%, EU 65%, ASEAN 24%).

그림 1. 인도의 대파키스탄 연도별 수출입 추이



자료: CEIC

표 1. 파키스탄의 주요 수출입국 순위 및 비중

수출국		수입국	
1	미국(15.7%)	1	UAE(19.2%)
2	아프가니스탄(10.5%)	2	중국(15%)
3	UAE (8.2%)	3	사우디아라비아(10.5%)
4	중국(7.7%)	4	쿠웨이트(7.8%)
5	영국(5.3%)	5	말레이시아(6.1%)
6	독일(5.1%)	6	일본(4.3%)
7	이탈리아(2.6%)	7	미국(3.3%)
17	인도 (1.3%)	8	인도(3.1%)

자료: 파키스탄 상무부 (2011.7-12월 기준)

〈출처: *Economic Times*, *Oxford Analytica*, 한·인도 CEPA 이후 對남아시아 통상정책” (KIEP 연구보고서)등〉
(정혜원 연구원)